

월간 **충현**



여유있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시편 4: 6~8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곧 여유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유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유가 있는 성도의 신앙간증입니다. 다윗왕은 그의 세째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은 만나궁궐을 버리고 신도 못 신고 도망을 가야 하는 억울하고 위태로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정처 없는 초라한 망명길에 나서게 되었지만 웅출해지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원수의 무리를 쳐주하거나 근심에 잠겨 한숨만 쉬지도 않고 안타까운 환난 중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인격을 갖춘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찬송을 부르고 자기 부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유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그 마음이 웅출하여져서 자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데 마음 그릇이 좁아져서 조금만 칭찬을 들으면 지나치게 흥내고 함부로 경솔하여지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여 이미 받았던 복까지 몽땅 털어버리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욕심은 많은데 이해할 수 있는 상대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전후·좌우를 분별하지도 않고 당장 생각나는 대로 그때 그때 느껴지는 대로 정신 없이 덤비는 조급한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여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여 몸이 병이 들거나 피로운 일이 좀 생기면 깊게 낙심하고 당황하며, 사업에 실패라도 하거나 가난에 부딪치면 남을 원망하고, 또 욕심이 일어나면 부모형제도 나라도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강박하고 잔인하며 미련스런 여유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왕과 같이 여유있는 성도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유 있는 신자가 되려면

첫째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이는 의인이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려면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성도가 됩니다.

둘째, 여유가 있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또 저주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라야 여유있게 바로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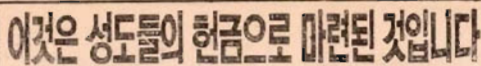
셋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있는 인격자가 됩니다.

네째, 신자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의 영생복락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 절개를 지키게 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올바르게 교훈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주시길 까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꿈에라도 더러운 욕심 때문에 세상의 헛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구하다가 마음이 좁아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또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교만한 자처럼 조급하고 답답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나의 마음을 넓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의 책임에만 충성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둔 신자로서 넓은 마음을 준비하시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행복되고 굳굳하게 이 세상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다같이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아멘 —



11월의 행사

- 4/경기당회
7/경기제작회 · 남전도회임원회 · 권사회임원회 · 재정위
원회 · 해의부음선교회실행위원회
8/산업전도회월례회
11/장로장립식
14/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여전도회임원회 · 청
년부헌신예배 · 월간충현편집위원회
15/임시당회
21/후수감사결 · 여전도회월례회 · 전도위원회 · 재정위원회
22/교육위원회
28/구역권좌회 · 산업전도회임원회 · 중등부헌신예배

11월호 차례

- | | |
|-----------------------------|---------|
| <발말> 여유있는 신자가 됩시다/김창인 목사 |2 |
| <권두언> 감사는 성도들만의 특권/주간 |3 |
| <특집> 성서에 나타난 감사절의 의미/정기성 목사 |4 |
| <감사절 수필> 감사의 내용/홍기욱 |6 |
| 감사의 이유/김인숙 |6 |
| 감사의 방법/차영애 |7 |
| 감사의 시기/윤보섭 |7 |
| <기획연재 ⑤> 군인전도·산업전도/오태용 |11 |
| <신설부서 소개> 산업전도교육부/김수성 전도사 |9 |
| <한국교회 순교사 ①> 주기철 목사/이경웅 |14 |
| <농어촌전도 소식> 자라나는 뿌린 씨앗들 |10 |
| <찬송가 해설> 감사하는 인민아 |12 |
| <책소개> 회개와 경종/정관일 목사 |12 |
| <캠페인> 사랑과 구제를 |13 |
| <1200자칼럼> 그리스도를 주재 | |
| 로 한 번주곡/이형수 |13 |
| <구역장 노트 ⑩> 신앙지도의 | |
| 지침 (2)/백성룡 목사 |15 |
| <구역소식> 결혼·별세·이민·알림 |15 |
| 해외교우 주소록 ② |8 |
| 감사절의 유래 |8 |
| <교회 뉴우스> |16 |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 |
| <저장후기·기자석·표지설명> |1 |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

오두견

감사는 성도들만의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손으로는 바치자!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즉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사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불신자들은 회개인, 대인적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종적인,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선과 선물의 저자요 주시는 자시라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된 것과 소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요일 4:19) 우리의 사랑이란 언제나 응답적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란 주속받은 자의 특징적 태도이다. 케렐케골은 “나는 본래 비참한 자였으나 내가 바라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제 내가 할 것은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동기를 부여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또는 봉사)니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호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 예배와 봉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그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
로 찬양하고 손으로는 바치자! “범사에 감사하
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주간>

성서에 나타난 감사절의 의미

.....◇ 모든 제사에는 속죄를 위한 피흘림이 있었고 또한 ◇.....
◇ 감사를 위한 화제가 꼭 뒤따랐다. 모든 제물을 태우 ◇.....
◇ 는 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헌신 ◇.....
◇ 을 뜻하는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는 예배로 진행되 ◇.....
◇ 고 예배는 감사 없이는 열납이 안된다. (본문 중에서) ◇.....

정 기 성 목사

〈부목사·새신자부 지도〉

1. 감사는 신앙의 척도

우리는 추수를 거의 마칠 무렵이 된 11월이 되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가지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 하고 짐스럼하게 맞이할지 모른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다. 평상시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법사에 감사한 사람은 감사절을 뜻있게 맞이하게 되지만, 불만과 원망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감사는 신앙인격의 내부가 드러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성숙정도를 측정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절기이지만 감사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는 영적 결실기이기도 한 것이다.

감사와 은혜는 분리할 수 없는 연속체이다. 그러므로 헬라어의 「유카리스토스」란 「감사」의 말도 「카이로오」의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요 만물의 영장된 인간의 값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야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요 신앙인이라 하기 곤란하다. 감사는 누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면 자연히 감사를 알게 되어 있다.



〈섬도가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요 신앙인이라 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정기성 목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청지기적 정신의 감사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하여 영적인 구원과 육신을 위한 모든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법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 18)라고 하였다.

2. 감사는 예배이다

성경은 감사 자체를 예배로 설명하고 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하였고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니라” 하였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명하시었다. 번제·소제·화목제·속죄제 등이 모든 제사에는 속죄를 위한 피흘림이 있었고 또한 감사를 위한 화제(불에 태움)가 꼭 뒤따랐다. 모든 제물을 태우는 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헌신을 뜻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다. 특별히 소제의 경우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농경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로 땅위에서 살도록 하시고 특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그 예배는 감사하므로 드려야 하고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형식뿐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는 감사 없이는 열납이 안된다.

3. 초막절이 전해주는 감사의 뜻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세가지 절기를 명하시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지키라 하였다(출 23:14-17). 특별히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과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율력으로 7월 15일(치스리) 양력으로 따지면 9~10월경에 지키게 하였다. 가을추수를 할 때이

다. 저들은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간을 살게 하며 추수한 것으로 먹고 즐기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짐승으로 날마다 드리게 하였다.

이 초막절에서 우리는 먼저 광야의 나그네생활을 기념하게 한 의미를 본다.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교훈을 하신다. 죄에 사로잡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멸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성도의 감사의 제일 조건이 이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감옥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참된 것 때문이요, 감시되었다 없었지 않 때문이 아니요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하여야 한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보다 앞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창조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위에 죄 중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는 허허벌판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도 40년을 광야에서 먹었고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우리의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과 열을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96%이고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4% 밖에 가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력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입을 옷은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천재지변을 내서 저 태양의 열기만 식어진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입을 벌리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방진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누가 목마를 때 쥘스 한잔 주는 것은 고마운 줄 알고 오대양에 물을 채우시고 하늘에 비와 땅 속에서 샘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마운 줄 모르고 있다. 누가 양식 없을 때 쌀 한 말 주는 것은 고마운 줄 알면서 오곡을 무르익게 하고 무진장의 바다 고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다. 누가 치료비 없을 때 병원비를 대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도 건강한 심장·눈·코·이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소견을 하나님은 참으시니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어찌 측량하겠는가!

초막절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를 누가 애굽에서 구원했으며 광야에서 누가 너를 먹이셨나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배를 내게 바치라고 명하신다.

4. 미국을 부강하게 한 감사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 이것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비결이었다. 현대의 감사절 유래는 이 청교도들의 감사절 행사에서부터인데 많은 희생자를 내어 가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1623년 처음 가을추수를 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첫번 감사절이 되었다.

그 해 11월에 당시의 행정관이었던 브랏포드(Bradford)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했으나, 정식으로 국경일로 된 것은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이 선언함으로써였다. 그 뒤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개정하였다가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목요일로 고치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감사절 행사는 마침내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에서 11월에 감사절을 지키게 하였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1908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했다가 1914년 11월 셋째 주일 후 지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1921년에는 장·감연합회에서 11월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 지키기로 결정한 일이 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믿음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 약속대로이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9:7,8).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가 물질을 창조하시어 영적인 은혜는 물질적 봉사를 남게 하고 물질 봉사는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5. 감사의 대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제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같은 이방인의 감사제는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제라 할 수 없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도는 은혜가 절대적인 것처럼 감사생활도 절대적이며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인 것처럼 감사의 쫄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요. 생활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 생활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친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 앞에 나무는 열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감사는 열매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손질이 된다.

(*)

<감사의 내용>

주님과 연결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홍 기 옥

<고등부 교사>

소소한 바람이 옷속을 파고든다. 지나간 여름날의 일상의 조각을 쫓아모아 본다. 얼마만큼의 행복한 형태를 이룰 수 있을까를 내 마음 속에 가늠해 보며……

국향이 무르익는 계절,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걸으면서 소박한 꽃집 물동이에 담겨 있는 국화 향기가 내 코끝을 자극할 때 난 문득 감사하고 싶어진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복을 올리고 집에서 나와 두 번이나 북적대는 만원버스를 타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의 생활여정을 상상할 때, 직장동료가 생활에 피로해진 서글픈 눈매로 호소해 올 때 조금의 위로의 말로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힐 때, 내 여학교시절에 말없이 조용했던 나를 생각하며, 나의 본신인 듯한 순진한 여학생의 까만 눈동자를 바라볼 때 난 감사하고 싶다.

요즘같이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까까머리 고등학교 제복을 입은 남학생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접했을 때, 가느다랗고 연한 고사리같은 하얀 손을 맞붙이고 식기도하는 내살차리 꼬마를 보았을 때, 가슴에 뭉클하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친다. 주름살이 많은 거칠은 손이지만 팔에 손수 십여 개 가두었던 냉이로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주시는 어머니의 따스함을 생각할 때, 글짓기대회에 출전했던 막내동생이 상장을 타고 밝은 웃음으로 기뻐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번 중보기도를 했던 후배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리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 라고 고백했을 때 진정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주일학교 학생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 오후 많은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여 해멜때지만 나의 발견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의식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다.

이제 마음도 몸도 추워지는 올세넨스런 겨울이 기다리고 있지만, 훈훈한 바람으로 향시 우리의 주위를 감싸는 주님의 따뜻한 품을 생각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나의 일생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기를 기원하며…….

여러번 중보기도를 했던 후배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감사의 이유>



충족되지 못한
상태서의 만족

김 인 숙

<월간충원 기자>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밤의 단들보다 지금 파도를 해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포만감이라 부를 수 있는 충족된 상태에서 감사한다. 그렇기에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달에도 다 차지 않거나 기운 상태에서의 아름다움이 있듯, 나는 오히려 보름달만만 충분한 상태에서보다 아직 다 차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나에게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솔직한 고백은 언제나 「나~, 나~」하던 사고방식에서 비로소 나의 추위와 만나 손잡게 된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나의 위치와 타인과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나는 나보다 훨씬 유능하며 더 나은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이제는 오히려 마음든든함을 지니게 되어 감사한다.

때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사소한 일에 감사한다. 나의 키로 말하자면 자가 들어들지 않는 한 155cm를 넘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키를 크게 보려는 어설픈 몸짓을 하지 않음은 강가에 자리잡고 저마다 독특한 자세를 가진 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는 유머러스한 평화 때문이며,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만족을 감사하게 된다. 게다가 나의 몸무게는 45kg를 넘어서 일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현혹이란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경악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을 바늘로 찌르면 나올 한 방울의 피가 몸 속에 흐르고 있는 사실에 감사한다. 현혈을 하라고 잡아끄는 사람에게 제면적은 웃음을 짓고 돌아서는 빈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큰 불의에는 어쩔 수 없으나 자라나는 적은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마음의 용기가 있고 이를 위한 남아 도는 피가 아니고 몇 방울의 흘릴 수 있는 피의 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특히 어제 친구의 말 「예수 믿고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일인가에 달렸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마지막 시간이 언제지 모르지만 일할 것이 많이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진정 감사한다.

내게 있어 감사의 까닭은 이 사람들이 왜 나의 부모인가를 캐기 이전에 이미 나의 부모로 존재하듯,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큰 불의에는 어쩔 수 없으나 자라나는 적은 불의에는 대항하는 마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의 방법>

적은 정성으로 시작

차 영 애

<제일성가대원>



그리스도의 성지를 찾아 다니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녀·노소,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배를 지어 순례를 하며 때때로 돈이 모자라 궁지에 몰리게 되면 천막을 치고 곡예를 해야 하는 서커스단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웅장한 성베드로사원 앞에 이르렀다. 그리곤 조용히 기도하며 옛 흔적을 되새겼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다만 그 웅장함에 위압감을 느끼며 하나씩 밖으로 나와 다음 행진지를 향했다. 한참을 가던 그들은 제일 나이가 어린 곡예사가 없음을 알았다. 서둘러 찾아 보았으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성베드로사원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어안이 빙빙해져 버렸다. 교회당 제단 앞에는 어린 곡예사가 마치 고행이라도 하는 듯 땀을 뻘뻘 흘리며 그의 장기인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는지 그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뭉글뭉글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고통의 빛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찬 모습이었다. 한 어른이 아이를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음 행진지를 향하며 묻는다.

“넌 왜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그 때 아이는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자 마음에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곤 끝없는 감사함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나도 무엇인가 드려서 그 감사함에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생각하던 끝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자신있는 물구나무서기를 하기로 했어요. 서커스단에서 내가 그것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으니까요. 아마 예수님도 저의 제주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 부끄러움에 몸을 바를 물라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감사의 방법도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이렇듯 한 아이의 땀배인 정성까지 같은 진실함만이 최고의 방법일 듯하다. 물질로써 희색되어진 현대의 사람들일지라도 참으로 진실일진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감사의 방법은 이렇듯, 작은 아이와 같은 적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는지.

이런 땀배인 정성까지도 같은 진실함만이 제일 나은 감사의 방법일 것이다.

<감사의 시기>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 때

윤 보 섭

<대학부 회원>



나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한 동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이 글을 씀으로써 또 감사의 의미를 찾으려는 한 부분으로서도 이 글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감사란 말, 설교에서 매번 듣는 감사란 단어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얼마나 부각되어 오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습관화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매일 매끼 밥을 먹듯이 말이다. 각 개인마다 감사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 고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진부함을 느낄 때, 권태로움을 느낄 때마저 감사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내게는 감사란 낙엽이 떨어질 때 느끼는 그 몽글한 속애, 떨어진 잎들을 밟을 때 무엇인가가 한가득 담겨 있음을 느낀 때 감사한다. 바람이 새차게 불어 주위에 떨어 오리라 풍요함을 잃지 않고 간직하게 한 것에, 조카의 흠부성이가 된 장난기 어린 옷 속에, 주름살이 제법 깊어진 엄마의 소녀같은 웃음 속에, 하룻밤을 새워 읽은 책 속에, 엄마가 깨어준 이불속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친구의 정성어린 편지 위에, 평평 내리는 눈위에, 바람 속에, 어머니가 짜준 텃밭감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들부들이 것들이 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엄마의 무릎에, 보고 싶은 친구에게서 오는 전화 벨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가 있다.

하지만,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벌거벗은 소년의 모습을 볼 때 내에게는 웃을 입게 된 것에 난 감사할 수가 없다. 탈출하려 노력하지 않고 탄 장학금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 마땅히 대맞아야 할 때 맞지 않은 안도의 숨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수가 없다.

나의 마음 속을 투명한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자신을 발견할 때 감사한다. 친구의 고통에 같이 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심을 볼 때 더욱 감사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일 때, 그래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로 채워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습관화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하지만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벌거벗은 소년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웃을 입게 된 것에 감사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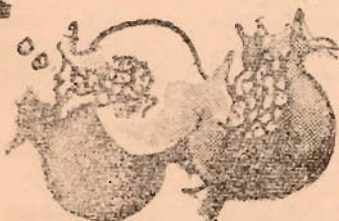
추수감사절의 유래

수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창23:16
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삼대절기 중 오늘의 추
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확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
굽에서 나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한 뒤에 가나안
에 들어가 장막절을 지킨 데서 유래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
천함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다
르게 되었다. 콘스탄틴 황제는 대제 9월 24일에
서술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지켰고, 알렉산더 교회는
대지진이 지난간 후에 이것을 감사하여 성대히 감
사절을 지켰으며, 그후 1605년 11월 5일을 감사절
로 변경하여 20여년간을 지켜내려온 동기는 목도들
이 왕과 상원을 덮어 버리려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
간 것을 감사해서였다.

그러나 오늘 전세계 교인들이 가지는 감사절은
특별히 다음에서 원인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
교도 이민들이 갖은 고생을 겪고 1623년에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게 된 것이 감
사절의 처음이다. 그해 11월 당시의 행정관 브랏포
드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으나 정식으로
국경일로 된 것은 워싱턴이 1789년에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한 뒤부터였다. 그뒤 링컨 대통령은 감
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개정하였다. 루스벨
트 대통령은 1939년에 새 관례로서 11월 세계 목요
일을 감사절로 정하였으나 미국 여러 지사들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해의
추수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지키게 되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독노회 제 2회에서 미국
의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켰고 그 후 1914년
제 3회 총회에서 11월 세계 주일 후로 다시 결정하
였다. 또다시 1921년 9월 10일 평양 장대현교회서
제 10회 총회 때 우리나라 형편에 맞도록 11월 2차
주일로 변경하였다가 11월 3차 주일을 감사절로
지켜 온 것이다.



해외에 계신 충현의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해외교우 주소록②〉

..... 해외에 나가 계신 충현의 교우들의 주.....
.....소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매월 보내는.....
.....「월간 충현」 받으신 분은 일차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주소의 착오나 이전 등은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3개월에 걸쳐 해외에 계신 충현의 교우의.....
.....주소록을 게재코자 하오니 피차 성도의.....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 (16) Dr. Yung Han Kim(김영한 박사)
355 Marburgil Friedrich-Ebert-street
711 WEST GERMANY
- (17) Mr. Sung Joo Kim(김성주 집사)
12651 Flower ST/Garden Grove Calif. U.S.
A.
- (18) Mrs. Young Ja Kim(김영자 집사)
11625 Orrd & Day R.D. Norwalk Calif 90650
U.S.A.
- (19) Mr. Hyun Chi Park(박현치 씨)
1071 W. 30th ST/L.A. Calif. 90007 U.S.A.
- (20) Mr. Sang Jung Kim(김상정 씨)
3639 Jamaica DR Augusta Ga 30904 U.S.A.
- (21) Mr. Shin Eui Kang(강신의 집사)
5862 N. Ridge Ave. Chicago Ill 60660 U.
S.A.
- (22) Dr. Jong Yun Lee(이종운 박사)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Philadelphia
5028 N. Marvine Street Philadelphia, Pa.
19141
- (23) Miss Hae Ja Yoon(윤혜자 씨)
1 Berlin 39 AM Groben Wannsee 80 Heckes-
horn Station C West Germany
- (24) Mrs. Hae Shin Kim(김혜신 씨)
17603 Caliente PL. Cerritos Calif. 90701 U.
S.A.
- (25) Miss Keum Shin Kwon(권금신 씨)
1 Berlin 39 Zum Keckeshorn 6-8
Block D 102 West Germany
- (26) Mr. Sung Chu Kim(김성주 씨)
1516 Ind Ave 3 L.A. Calif. 90019 U.S.A.
- (27) Mr. Sung Kwan Kim(김성관 씨)
2134 W. Rose Mont Chicago Ill 60645 U.S.A.
- (28) Mrs. Jung Shin Alexander(정정신 씨)
1712 1/2 taft Louton Oklahoma 7350 U.S.
A.
- (29) Mrs. Ji In Hong(홍지인 씨)
143-43 41st Ave. Apt 7K Flushing U.S.A.
- (30) Mr. Kim, Kwang Yo(김광려 집사)
Steinbacher Hohl 22 Erdg. 6000 Frankfurt
am Main 90 Deutschland
- (31) Mrs. Shin Kim(김진 씨)
40 Richmond R.D. Macomb Ill 61455 U.S.
A.

산업사회 복음화의 발디딤

김 수 성 전도사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1976년 7월 4일 「충현」역사에 새로운 장을 장식할 주일학교가 발족하였다.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디딘 이 주일학교가 바로 직업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산업전도교육부이다.

1. 세워진 이유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꼭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모되는 산업 사회속에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현재 모든 교회 주일학교 체제가 대체로 일반 사회학교의 제도를 기준하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직업 청소년들의 환경과 처지를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기회는 그들의 젊음이 가 버림과 동시에 잃어 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학교 어느 부서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직업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교육 방법과 여건을 조성하여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직업 청소년들이 신앙과 생활을 말씀으로 지도받고 나아가서는 각자의 직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전도교육부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2. 현 황

지난 7월 4일 12시에 40여명이 흥 종만 목사를 모시고 유치부실에서 산업전도교육부 발족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흥 목사는 직업 청소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작성시켜 주었고 산업전도회 회원도 많이 참석하여 산업전도교육부가 건실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었다. 지금은 회원들의 열성으로 점점 학생수가 증가하여 60여명 선에 이르고 있다. 처음 조직된 주일학교라 회원들의 친목을 위하여 지난 9월 5일에 영아부실에서 40여명이 모여 친목회를 가졌고 또 9월 8일에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태능에서 야외예배를 가졌다. 얼마 전 산업전도교육부의 지도를 맡으셨던 흥 종만 목사가 선교사로 홍콩으로 떠나신 후 백 성룡 목사를 새 지도로 모셨다.

부장과 지도교역자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의 교사가 개척교회와 같은 오붓한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공부는 매 주일 12시부터 유치부실에서 하며 각

조로 편성하여 친교시간을 가진다. 또 주일마다 생일을 맞이한 회원을 축하하고 새 회원을 환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10월에는 면려회를 조직하여 회원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조별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찬송 실력을 높이며, 11월에는 추수 감사절 예배와 함께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유익한 지식을 얻게 하며 12월에는 성탄 축하예배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다.

또 언제든지 회원들의 상담에 응하여 생활 지도에 힘쓰며 각종 전도훈련을 실시하여 직장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원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초대 부장에 황기성장로 부장에 정은표 집사(남) 정선화집사(여)지도에 백성룡목사 부지도에 김수성전도사 교사에 조성행선생(회계담당)을 두고 있다.

3. 산업전도회와의 관계

산업전도교육부가 문을 여는 것과 배를 같이하여 산업전도회가 발족하였다. 더 거슬러올라가면 지난 2월 9일 기업인 수련회란 모임이 있기도 하였다. 산업전도회란 충현교회 남, 녀 성도로서 ①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② 기업을 운영하려는 분과 ③ 직장인으로서 산업사회 복음화에 뜻이 있는 분들의 모임을 말한다. 위와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훈련받으면서 서로 대화하므로 가까이는 회원이 몸 담고 있는 직장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는 산업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산업전도회는 직업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직접 담당한 산업전도교육부에 대하여 물질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

지금 우리 산업전도교육부는 지도 목사와 부장, 부감들까지도 직접 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상담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전도교육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며 여러분 주위의 직업 청소년들을 권고하여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고, 직업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계신 분은 교사로 지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라나는 뿌린 씨앗들

- ☐..... 지난 여름 우리는 농어촌에 파송되어 많은 결신자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
- ☐.....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많은 경우에 잊혀지고 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이거나.....☐
- ☐.....하는 수가 많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는 뿌린 씨앗들에 대한 성장문제를 거론하지.....☐
- ☐.....만 계속되는 문제로 남겨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생각하며 여기에 지난 여름 제일성가대에서 제주도에 전도갔다가 잠시 돌려 전.....☐
- ☐.....도한 제남보육원의 어린이들의 그 후의 모습을 전하며 여러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
- ☐.....고자 한다. 전도의 목적과 그 방법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등을.....☐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선생님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가신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군요. 선생님과 함께 만나게 된 날이 기쁨이 없이 없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 주신 것을 머리 속에서 잊지 않고 매일 친구들과 율동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착한 미애가 될 것 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무더운 여름방학이 모두 지나고 개학이 되었어요. 저는 2학기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에요. 가을에는 독서하기가 매우 좋아요. 저는 이번 가을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취미를 붙일 것이에요. 동생들을 사랑하면서 원생활에 충실히 잘 지낼 것이에요. 선생님 자주 편지해 주세요. 저도 자주 편지해 드릴게요.

선생님, 몸건강하세요 선생님을 위해 늘 기도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미애 올림

저희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 해 주세요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무뎠던 날씨도 다 지나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선선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저는 그래도 선생님을 못잊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과 즐겁게 지냈던 그 날이 지금도 그리워요. 그런 기회가 또 한번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9월 1일부터 개학을 했어요. 선생님도 바쁘고 하니 저의 마음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학교에 충실히 다니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무 번거없이 잘 지내고 있겠지요. 선생님은 제주도 오셨을 때 많은 것을

구경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딱 한가지 구경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한라산 말이에요. 저는 한라산이 있다는 것을 알곤 있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한라산 사진을 보내겠어요. 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의로 아시고 받아 주세요. 이 조그마한 사진을 보시고 한라산이 이렇다는 것만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주도는 가을만 오면 밀감이 주렁주렁 열리지요. 이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생님은 못먹어 봤지요?

그리고 가을이 돌아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지요. 선생님도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지요. 그리고 저희 생일은 9월 15일날이에요. 저희선물은 못해 주더라도 저희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저희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미선 올림

함께 갑시다가 자주 불러져요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왔군요. 선생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에 내려와서 서남교회에 머무시며 우리 제남보육원에도 오셔서 율동과 노래를 많이 가르쳐 주셨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노래 율동을 시간나면 「함께갑시다」, 시간나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노래율동을 하며 지내는 저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에요. 저는 번소에 가서라도 「함께갑시다」란 노래가 얼마나 훌륭한 노래인지 자주 이 노래만 불러지는 것이에요. 저의 이름은 알아도 저의 얼굴은 모를 것이에요. 저는 지난 8월 18일날 선생님께서 부채를 빌려 주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알 것으로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저희들은 7월 24일에 방학을 해서 9월 1일부터는 개학을 하게 되었어요. 1학기 때에는 공부를 좀 안했지만 2학기 때에는 공부를 좀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안녕!

미화 올림

군인 전도 · 산업 전도

군인전도에 있어서 줄어가는 군목의 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군승(軍僧) 등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고, 산업 전도에 있어서 산업선교란 이름 밑에 이질적 복음전파로 노사간의 분규를 야기시켜 우리의 순수한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있다...

오 태 용

<월간충현 간사 · 중등부교사>

광활한 바다 어디에나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히겠지만 한번 던져 보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으니 이름하여 어장——그래서 세계 각국의 원양어선단은 배터리를 다투어 소문난 어장으로 물러들고 있다. 전도에 있어서도 황금어장이랄 수 있는 곳이 있겠 마련이니 군인 전도와 산업 전도가 곧 그것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약빠른 계산 아래 지금 이들 황금어장은 불탄당 같은 무리들이 잠식해 들어와 우리의 순수한 어로의 길을 방해하며 남획하고 있다. 군인 전도에 있어서 줄어가는 군목의 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군승과 신부가 앞을 다투어 그 자리를 메우고 있고, 산업 전도에 있어서 산업 선교라는 이름 밑에 이질적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노사간의 분규를 야기시켜 우리의 순수한 복음 전파의 길을 연연중 막고 있다 비록 개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능력이면 이 두 군데 전도를 역량있게 담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군인 전도와 산업 전도에 대한 인식을 교회 앞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I. 군인 전도

처음 우리 교회가 군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약 6년전 합동세례식에 참여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후로 군 위문을 하고, 군인 교회당 건축에 보조도 하며, 군목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경책 기타 신앙 서적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군인 전도를 운운함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늘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군대 내에서 확신있게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연대급에나 1명 있는 군목의 힘으로는 어렵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대나 중대는 군중 사병 한 두 명이 신앙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들은 모든 설교, 심방, 상담, 군종행정 등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업무량에 비해 실력이 크게 부족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이 절감되자 작년부터 1사단 내의 군중 사병 훈련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로 훈련내용을 보면 성경 강의, 설교학, 상담학, 부흥집회, 군종업무 등이다.

군인전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군목 지원이다. 특히 가장 성실하게 군목 활동을 한다는 우리 합동측 군목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해 나가버리는 실정에 있다. 자연 그 자리는 군승(軍僧)이나 신부가 차지하여 막대한 재정적 보조를 받아 화려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이는 범교단적 문제이므로 시급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일인데 현재 우리교회는 국방부의 한 군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므로 그것을 순리대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병보다는 장교를 얻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 우리교회는 대 사관학교 전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자매결연 같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기독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온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II. 산업 전도

「산업전도」하게 되면 WCC제의 산업선교라는 것을 일른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교회가 지향하는 산업전도는 탈복음적인 것이 아닌 산업인의 복음화이다. 즉 기업 경영층과 근로층의 복음화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경영자도 근로자도 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전도의 필요성은 기업 경영주의 횡포도 횡포이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을 바라볼 때 더욱 절실히 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시골 출신의 저학력자들로 거개가 문 제성을 안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경박한 사회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확실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도리밖에 없다고 믿는다.

금년초 우리교회는 처음으로 기업인 수련회를 가졌는데 예상밖에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에서 산업전도에 대한 착상을 얻어 늦긴 하였지만 7월에 산업전도회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을 보았다. 이 산업전도회는 「오늘의 우리직장의 복음화 · 내일의 산업사회의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산업전도 요원을 양성하며 기업체를 복음화하고 산업전도 교육부를 지원하며 복음적 기업운영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늦게 발족된 관계로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회회간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며, 텃군에서 공장예배를 드리는 외에 아직 큰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내로 일할 기반을 구축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 계획중이라고 한 실무자는 말한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한마음이 된 사장과 직원들이 찬송과 기도로 근무를 시작하고 마치 주께 하듯 자기 많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주님께 감사드리고 퇴근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

감사하는 인민아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새 570; 개 534; 합 563)

감사하는 인민아 추수찬미 합시다.
 엄동설한 오기전 열려없게 거뒀네
 천부께서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예배당에 모여서 추수찬미 합시다

“많은 일들을 나는 해보려고 했었네, 수많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네, 그러나, 보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하늘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똑같은 양의 햇볕과 바람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을 심었는가는 각자 다르며, 따라서 그 결실의 의미도 천대만별일 것이다. 또한 「심은대로 거둔다」만큼 천대만별의 감사를 우리는 하게 된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헨리 엘포드(Henry Alford) 목사는 신학자요, 시인이요, 작가요, 예술가요, 음악가요, 학자로서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천품을 많이 타고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1810년 런던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성직을 받고 윌트셔 윙크필드와 함께 앰프톤에서 그의 부친의 부목사로 시무했다. 그후 얼마 안되어 레이세스터셔 와일드필드의 교구목사와 런던의 웨백교회의 목사를 지내다가 그곳에서 1857년 캔터베리의 부감독으로 영전했다. 그는 50여권의 저서를 내었는데 그 중에 신약성서주석은 유명한 것이며, 수권의 시집과 번역 작품과 많은 양의 설교와 비평집을 저술했다. 그의 번역과 작시는 찬송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찬송가는 한층 더 풍부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와 찬미집」, 「찬양의 해」, 「시집」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의 부드러운 성격과 정돈중에 있던 여러 문제에 대해 철저히 공경하였으므로 국교도나 비국교도들간에 똑같이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박력과 정력의 일꾼이었던 그였지만 산적한 일에 치여 건강을 잃었고 마침내 1871년 캔터베리에서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오늘 하나님과 내 영혼 앞에서 하나님과의 성약(聖約)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 나의 힘이 다할 때까지 그의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고 세 생일을 기념하는 날 적은 기록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꾸준한 헌신과 전 생애를 통한 참다운 신앙의 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추수찬송은 「시와 찬미집」에 8행시 7절이 처음 실렸었고, 1865년 「시집」에 약간 수정된 것이 실렸었다. 1절은 지상의 하나님의 전에 통성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고, 2,3절은 가라지의 비유와 예수의 설명을 시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선한 사람은 알곡이 되어 곳간(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악인은 가라지로서 밭에 묶여 불(지옥)에 던지운다는 것이다. 4절은 우리가 죽으면 장차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원이다.

이 찬송곡명은 원조의 성 조지 교회에서 판 것으로 작곡자 조지 엘비는 무려 47년간을 그 교회의 율게니스트로 봉직했었던 분이다.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정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

——「월간 총련」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조셉 엘라인 저
 이태웅 번역



생명의 말씀사 발행
 4·6판 200면 값 420원

이 책을 읽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구원의 결박감을 느끼지 않을 불신자가 없을 것이다. 저자 엘라인은 비록 34세로 짧은 생애를 남겼지만 그처럼 주님을 위해 알차게 살아드린 사람도 없다.

그는 이 책에서 회심(回心)의 체험을 평강히 강조하고 있다. 고백이나 세례를 받고 도덕적인 생활이 결코 참 신자의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즈근하여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결함발이의 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향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내가 참으로 회심을 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책을 읽으므로 스스로 알게 되고 답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진단을 위해서도 아직 회심에 회의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必讀書)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전도자가 없을 만큼 생명력과 은혜가 강처럼 넘치는 책이다. 이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도자 중에는 유명한 윌필드와 스퍼전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다. 스퍼전은 그의 유년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저녁이면 난로가에 둘러앉아 이 책을 읽어 주었다고 하며 스퍼전은 죄를 깨달은 날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손에 든 책은 엘라인의 「경종」이었다고 한다. 그는 성경다움으로 이 책을 사랑한 연고로 스퍼전다운 대목회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탐독하므로 회심의 참뜻을 알고 신앙생활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라며 추천하는 바이다.

*정관일 목사(도서실장)

□ 캠페인 / 사랑과 구제를 □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우리들은 또다른 하나의 제목을 붙잡고 남은 76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랑과 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적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울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성경에서)

1700기 진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변주곡 3

이 형 수

사랑하는 친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믿는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되도록 성장하기를 바라며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發想)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자기는 꼭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것을 확실하다고 말하며, 지난 해 가을, 가을이 마구 무르익어 가는 소리를 위로 하고 훌쩍 한국을 떠난 것이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Christ)이다.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상 우리 생활의 구체적인 목표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망각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였는가를 확인하는 일에 게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때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앞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의지를 배제하고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의 출생과 형성, 지금, 미래의 어느것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시작과 진행, 완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Christ)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이러한 삶의 목적,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구성되어 된다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인은 「저지 밭살에 끼인 때라도 시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훌륭한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일임을 자각한다면 우린 매사에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그는 우리 삶의 근본이며 생활의 중심인 것이다.

주기철 목사—평양 형무소 감방에서

이 정 웅

〈고등부교사·종신연구원 2년〉

1. 학생시절

경남 창원군 용천 북부리에서 주현성 장로의 4남으로 출생한 주목사는 어머니 조씨의 믿음으로 양육되었다. 그는 막내아들로 사랑을 받으며 어려서도 동배목사라는 별명을 받으며 자랐다.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8세에 용천 개통사립학교에 입학하였다. 유달리 공부를 잘하여 오산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20세에 졸업하고 연희대학 상과에 입학하였으나 안질병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다. 그후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소명을 받고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주기철 목사의 모습〉

2. 목회에 성공자

부산 초량교회에서 6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6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6년, 도합 18년간이었다. 주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성경연구와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부산에서 당시 제일 큰 교회로 300명이나 모였다. 주목사는 목회하면서 전 주성경학원과 경남성경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여 후배를 길렀다. 1936년 여름 평양 산정현교회는 당회 제적회 온교회가 기쁨과 찬송으로 주목사를 맞으니 이가 앞으로 순교할 주인공인 줄 누가 알았으리요! “문창교회가 것처럼 잘 섬기고 부흥하는데 왜 평양에 왔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국교회가 큰 시험이 올터인데 누가 이것을 이길까 열려가 되어 미약하나 그 짐을 지기 위해 예루살렘과 같은 평양에 왔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학식이나 강라식이 아닌 성경 그대로 주해하는 설교내용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목회에 성공하였다.

3. 신사 참배로 당한 고난

1938년 9월에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큰 오점을 찍은 것이다. 총회기 목사가 총회장 이 되었을 때 박용률 목사가 일어나서 “당국에서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국가의식이라 하니 우리 총회도 신사참배하기를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아오”하고 동의를 하였다. 총회장은 이 말이 떨어지자 곧 가하면 “에”하

시오 하고 물으니 두세 사람이 “에”하고 188명이 거의 다 “부”에 가담했는데 “부”도 묻지 않고 “가결”이요라고 선언하니 이것이 우리 총회의 씻을 수 없는 범죄였다.

주목사는 안질과 폐와 심장이 약해져서 고통되는 몸 또 모진 고문으로 쇠약해진 몸 빈대에 물려 몸을 만지면 잡히는 빈대할 속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였다. 포악무도한 일본인들은 주목사를 투옥하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목사직 사면서까지 쓰라고 야단이었다. 주목사는 “나의 목사직은 성직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

라고 하시기 전에는 사면 못한다”고 거절하였다. 무려 4차례나 검거 당하여 7년 옥고 끝에 몸은 쇠진하였으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었다. 1944년 4월 13일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병감으로 옮기었다. 4월 21일에 80노도님이 꿈에 “편 옷을 입은 주목사가”보였다. 이날 오정모집사(사모님)는 감방으로 가서 면회를 청하였다. 감방에는 주목사의 유언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목사의 최후 유언은 “나는 아무때도 몸이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싸웠으나 80노도인 어머니님 봉양도 못해 드리고 앞서가는 불효자식이니 나 대신 어머니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한국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하겠는데……산정현 교우들이 보고 실소” 이것이 주목사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면회가 끝난후 밤 9시 30분에 평양 형무소 감방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에 “내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를 붙드시옵소서.”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운명하니 주목사의 얼굴엔 미소가 넘쳐 있었다. 장하다! 49세의 주기철 목사,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자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목사의 순교 배후에는 부인되는 오정모 집사의 기도와 강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목사가 약해질 때에 5시에 일어나 기도하였고 한달에 한번씩 면회까지 간곡히 순교를 부탁하였으며 나는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이 약해진다면 나는 이혼하겠어요.”라고 까지 강하게 신앙으로 주장된 오정모 집사! 자기 부인을 보는 주목사는 더욱 힘이 소생하였던 것이다. 장하다! 연약한 여성이 주목사와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까지 순교의 반열에서 죽음과 생명의 면류관을 쓰도록 기도와 신앙으로 격려하였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10월 중 결혼)

- 김보일/정정옥집사 아들—8일, 충현교회
- 김희자/정정옥집사 딸—12일, 충현교회
- 윤경희/윤종성장로, 신군자권사 장녀—14일, 충현교회
- 조항순/조창선씨 딸—23일, 충현교회
- 강옥희/유치부교사—25일, 충현교회
- 박철순·이지은/박상운/김경혜집사 아들—28일 Y.W.C.A 강당
- 이영남/이부전집사 아들—27일, 이화예식장

위로드립니다(10월 중 별세)

- 박영봉/미아리구역—3일
- 안응열/필동구역—6일
- 한병문/월곡구역—8일
- 이순명/율지구역—11일
- 유이덕/민순애집사 친모—12일
- 서석기/김복실집사 시부—10일

10월중 해외이주가족

- 김영두장로—14일, 미국
- 윤옥주집사/정능구역—23일, 미국
- 오지은집사—혹석구역—28일, 파라과이
- 신정순씨—삼선구역—28일, 파라과이
- 정명조씨—회경구역—29일, 파라과이
- 이정신씨—후암구역—29일, 카나다

알림

- 11월부터 저녁예배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 12월에는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 12월부터 매주일 특별집회를 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 홍종만 목사님은 사모님과 세 자녀를 동반하시고 지난 9월 23일 홍콩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가신 홍콩은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혼잡한 국제도시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과 며칠 전 선교지를 바꾸어 인도네시아 서선교사님과 합류하신 이 연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외과 의사로 일본에 가서서 정신도선교사로 열심히 일하시는 유병세 집사님이 선교임무를 능력이껏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 이번에 신동수 집사님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정신도선교사의 자격으로 11월 9일 출국하셨습니다. 선교임무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 구역장 노트 10 □

신앙지도의 지침(2)

백성통 목사
(구역권찰회장)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어떻게 성경말씀에 친숙해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성경공부 권장 일람표」를 만들어 놓고 어린이로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아니면 장년들만이라도 좋다) 성경공부하는 형편을 점검해서 구역모임이 있을 때에는 서로 알도록 하고 토론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달마다 교회에서 발간되는 “성경통신 강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보다 알맞는 형태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성경읽기표를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배부하고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기록에 남기도록 해도 좋고 성경 암송에는 어린이들까지 참여시켜서 적극 장려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들이다. 이런 일과 함께 각연령층에 따라 해당하는 주일학교 각부에 출석, 공부하도록 권할 일이다.

성경공부를 장려하는 뜻에서 어떤 시상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있을 법하나 여기에는 폐단스러운 일이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일이다. 요는 성경공부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심령에 감동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동을 생각해 봐야 한다.

(2) 기도생활에 힘쓸 것 :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행사의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계속 되어야 한다. 기도의 요령은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 또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간혹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끝을 맺으나 그것은 다 편법에 속한 것으로 본다(요 15:16 참조).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회개·도고·간구 등 순서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성경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면 다 좋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경건하게 그리고 조심성있는 말로 하여야 한다.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는 종종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게는 책망조의 불경스러운 어조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형의 기도를 장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기도를 무슨 정신수양이나 정신통일을 하기 위한 한 방책(그런 유익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같이 여겨질 수가 있다. 기도에는 공(公) 기도와 사(私) 기도가 있다. 사기도에 있어서의 특징은 무제한의 기도이지만 공기도는 모든 면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호 계속>

— 당회장 김창인 목사—
큰 성과 거두고 귀국



세계선교
대회 참석
동·귀환·임
무를 떠고
지난 7월
21일 출국
했던 당회
장 김창인
목사(사진)

가 100여일만인 11월 1일 오후 7시에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하였다. 당회장은 그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서독과 미국·캐나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선교지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둘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격려하였다.

지난 주일(11월 7일) 특별집회 「오늘의 간증」시간에는 김창인 목사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제목의 보고강연을 들으면서 금번에 당회장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두번째 평신도선교사—
신동수 집사를 결정

대학부 교사로도 일한바 있는 신동수 집사(여의도구역장)가 금번 사업상 해외에 진출, 전가족이 이민감에 따라 그곳에서 평신도로서 선교활동을 할 것을 지원, 해외복음선교회 추천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고 11월 9일 임지로 떠났다.

지난 주일(11월 7일)저녁 임명장을 받은 신집사는 새로 출범한 산업전도회 친교부장으로서 활약한바도 있는데 그의 임지는 남아메리카주 아르헨티나 나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머물며 평신도선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김희학부부 장학생선발에
—김수성 전도사 선정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해외여행 보고회에서 언급된바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시 거주 교인 김희학 부부가 청원해 온 장학생 선발에는 현재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로 있는 김수성 전도사(총회신학대학 연구원 1년)가 당회에 의해 뽑혔다.

신년도 구역 다시 편성하기로

—원사·서리집사 숫자 크게 늘어—

지난 11월 4일에 있는 정기당회에서는 교인과 세대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금까지의 동·서·남·북 4개 지구를 5개 지구로 개편하는 한편 원사 및 서리집사의 수를 크게 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서부지역·남부지역·북부지역을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제5지역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교역자 보충문제에는 정기성 목사(새신자부 지도)와 정권일 목사(청년부 지도)가 같이 한 지역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원사가 19명에서 23명으로 자연증가되며, 시무원사를 지금의 91명에서 106명으로(15명 증가), 남자 서리집사를 현재의 132명에서 160명(28명 증가), 여자 서리집사 현재의 362명에서 400명으로(38명 증가)늘일 방침을 굳히고, 11월중 후보자명단이 작성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자가 당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추기 성례식 성대히 거행

—수세자 408명, 17일에 성찬식도—

한해 두차례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성례식이 지난달에 있었다.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문답에 이어 15일 저녁에는 모두 408명(남 171명, 여 237명)에게 성례식이 베풀어졌다. 이는 작년 가을 성례식의 수세자 352명에 비교하여 56명이 더 증가된 숫자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학습 165명(남 57명, 여 108명), 세례 194명(남 85명, 여 109명), 유아세례 36명(남 25명, 여 11명), 입교 12명(남 4명, 여 8명), 개종 1명(여)이다.

한편 10월 17일 1·2·3부 예배때에 있는 추기성찬예식에는 모두 2,759명(작년 2,479명)의 세례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구속의 은총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남전도회 지교회 새로 선정

—부평시 공업단지 교회—

그간 지교회를 물색해 온 남전도회(회장 김기정 장로)는 새로 부평시 공업단지 근처 30명을 개척 중인 교회(한광일 전도사)를 지정, 돕기로 하였다. 전세금 120만원을 부담코 이 교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큰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담임 한전도사는 산업전도에 경험이 있고 복음전도에 소명감이 투철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신망애노인교회 등에 지원

—전도위원회, 교회·연합회 등에—

전도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는 부산 소재 신망애노인 교회를 비롯하여 대전 태평중앙교회와 함평 운산교회, 파주시찰 한태교회, 명성교회 그리고 수도권회남전도연합회와 육군 모부대 등에 보조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해외 충현성도들 선교헌금

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인도네시아와 홍콩 선교를 위해 정성된 헌금을 해왔다는 것이 금번 귀국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그간에도 인도네시아 한국 선교관 건립 등에 협력해 온 해외 충현 성도들은 당회장편에 성금 얼마씩을 기탁해 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동규 장로 100달러, 임현덕 장로 100달러, 유말선 집사 모친 200달러, 김진옥 집사 400달러, 박우금 집사 40달러.

장로장립 11일에 거행

—정석태·최성립 두 분—

지난 5월 16일 2차투표까지 실시해 신임장로에 당선된 정석태 집사(장년부 부감) 최성립 집사(고등부 부감)의 장로장립식이 11월 11일 저녁 7시부터 600여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2층 본당에서 베풀어졌다. 이들은 지난번 가을 수도노회에서 시위·승인을 얻어 이 날 감격스러운 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역시 장로투표에서 당선된 김영삼 집사(국회 의원)는 개인 특별사정으로 장로시위연기청원을 수도노회장에게 제출,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시무(치리)장로 28명에 공로장로 3명, 증경장로 4명이 되었다.



북아메리카주 두 교회와 자매결연

—미국과 캐나다의 교포교회와—

보수주의 교단의 보루로 ① 민족 복음화의 센터로서 ②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로서 ③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한 제사장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표방하는 본교회는 이미 국내 전도와 함께 국외 선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전파를 위한 전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난번 정기당회에서는 북아메리카주의 두 교포교회가 본교회와 자매(형제) 교회를 맺고 싶다는 청원에 대하여 받아들여기로 가결되었는데 그 두 교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예루살렘교회(당회장 임동하 목사)와 캐나다 소재의 칼가리한인교회(가칭, 대표: 박은현 집사)이다.

그런데 이 두 교회와의 결연제기는 당회장의 해외여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신년도 맞아 교역자 재배치

—정연희·정소영 전도사 전임으로—

신년에 들어 본교회 기구 확장·개편으로 교역자들의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기성·정경일 목사 두분이 지구(구역)에 배치되고, 김경성 전도사가 심방과 교육을 겸무하게 되며, 유아교육에 전념해 온 유치부 정연희 전도사와 영아부 정소영 전도사가 교회 전임으로 임명되며, 따로 노인부에도 전도사 한분을 모실 예정이다.

한편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각부에 부지도를 두게 됨으로써 교역자 수가 더 늘게 되었다.

이정웅 선생에게 본교회 특별 장학금

지난 정기당회는 고등부 교사 이정웅 선생에게 학비 충당에 쓰도록 장학금 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총회신학대학 연구원 2년에 재학중인 이선생은 이미 훌륭한 학업성적으로 총신장학금을 타고 있으나 일부 학비 부족액을 교회가 특별히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선생은 본 「월간 중현」에 그간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을 연재 집필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순교사화를 연재 집필 중에 있다.

한국가곡제 작곡부문에 강혜영 선생 입상

우리교회에서 성장, 현재 유년부 지휘자로 수고하고 있는 강혜영 선생(연세대 작곡과 졸업)이 일간 스포츠사와 성음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가 후원한 제 1회 한국가곡제의 작곡부문에 입상했다. 이육사의 시 「강진간 난 노래」에 곡을 붙인 이 곡은 지난 10월 28일 류관순기념관에서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씨의 노래로 발표되었다.

토막소식

*교회는 매주일 특별집회를 12월 부터 당분간 쉬기로 하였다.

*교회는 11월 7일주일부터 저녁에 배 시작시간을 7시로 당겼다.

*당회장 방송설교시간이 매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45분으로 바뀌었다.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각부 종합감사를 부장단에게 위임 11월 7일 감사하고 다음주일까지 보고하게 했다.

*영어성경반(강사: 총신의 운영목교수)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있다.

*성경통신강좌 10월호가 나와 사무실에서 배부중이다.

*새신자부는 11월 14일 신앙간증 및 신앙생활에 대한 좌담회를 연다.

*영아부는 유치부로 가게 되는 영아의 학부모를 모시고 14일 좌담회가 있다.

*유치부는 감사절 특수를 위해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유년부는 11월 21일 감사절 행사로 음악등의 선덕원교아원을 방문키로 하였다.

*유년부는 자체교사로만 구성된 유년부 교사성가대 발족식을 11월 6일에 가졌다.

*초등부는 11월 7일 노방전도를 했고, 28일엔 성가경연대회를 갖는다.

*중등부는 14일 반별찬송부르기대회를 갖고, 21일엔 감사절 행사로 맹인교회를 방문 예정이다.

*고등부는 11월 7일 예비교사준비기도를 가졌고, 14일에 면려회 총회를 열며, 27일에는 춘곡발표회를 가진다.

*고등부는 11월 대학에비교사를 위한 컬야기도회 가지며, 21일에는 감사절 행사로 교아원을 위문할려고 한다.

*대학부는 11월 6일 조별성가대회가 있었고, 20일엔 감사절 행사로 연극공연 및 음악회를 연다.

*청년부는 11월 14일 헌신에배를 드리고, 21일엔 일제전도를 교도소로 정했다.

*유경복 권사(미국, 김영화 권사(자당)가 교회 사업 위해 금지환을 헌납했다고 한다.

기 자 석

○...하와와 아담이 자기의 어떠한을 넉넉히 해야
러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는 생활을 하였
더라면 오늘날처럼 특별히 「감사절」이라 해서 따로
지키는 제도는 안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신자전 불신자전간에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 언어에 관
해 관심이 많은 학도라면 신자 50명, 불신자 50명씩 해서 교육수준,
생활정도, 남녀별 등으로 표본추출, 그들의 언어생활 중 「감사」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 분석하여 「감사생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감사와 인격형성의 상관관계」같은 이색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논문을 연구 발표해 볼지도 하다.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자 90%, 불신자 10% 정도의 비율
로 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가설이다. 불신자
는 무슨 거래관계가 있을 때에나 주로 쓰지만 신자는 별것을 다 가지
고도 감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서도 감사하
는 것을 보고 불신자는 머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감사의 횟수가 얼마만큼이나 의미있는 일일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질이나 깊이이지 그 횟수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감
사의 질을 따진다면 어느쪽이 더 깊이있는 것인지 우리 인간으로서
알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그것도 하등 감사할 조건이 못되는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말
가장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다. 그런데 너무 하늘만을 향해 감사하
다 그만 목이 굳어져버려서 그런지 우리의 바로 옆, 이웃들에게는 감
사를 동한히하거나 아예 있어 버리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폄하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교회
의 가르침을 비롯 우리의 귀를 때리는 대부분의 말씀은 수직적 감사를
더 강조하는 나머지 수평적 감사는 무관심해 버리는 것에 슬퍼한다.

○...그 슬픔의 눈금을 한치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구체
적인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같이 생활하
는 형제, 이웃간에는 흔적이 뚜렷하고 증거가 있는 감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길을 가로막았는가.

○...일이 이렇게 증대하고 심각하므로 그 원인은 철저히 분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정
리하고 곰곰 생각하니 자기를 똑바로 알지 못해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
랑하지 못한 연고로 감사를 못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늘 자기의 어떠
함을 알고 살피며 정말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눈길은
하늘 아버지를 향할 뿐 아니라 동시에 땅의 이웃에게도 향해야 할 것
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참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것도 항상 마음에 품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
를 연습하라고 명령한다. 신체적 단련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듯 감사
생활도 게으르지 않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매일매일 또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기를 연습해 나갈 때 우리
의 생활은 약속된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양의 축복 받은
비결을 Thank you, Jesus(God)!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연습하는 감사
생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감사의 달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감사의 언어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를 냉정히 돌아켜 보고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감사를
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늘 감사를 연습함으로 주기로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우리 한국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태용)

편집하고 나서

*...이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
다. 금년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의 절결」과 진실하지 못한
감사의 풍성함이 있거나 없었는
지... 감사절을 맞으며 특별으로
정기성 측사의 「성서에 나타난 감
사절의 의미」와 감사절수원을 찾
아보았다. 감사의 이유·내용·
시기·방법, 그 유래 등을 명확
히 알아야 되겠기 때문이다. 뚜
렷한 감사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
야 나올 것이다.

*...내년을 위한 준비와 계획이 각
기관·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다.
물론 편집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덧 76년도 다 가고 있는 이즈
음 「월간충현」이 금년에 교회와
온 성도들의 격려·성원 속에 계
획대로 실시해 오고 있음을 주님
께 감사드리며 보다 충실한 결실
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온 성
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신도를 위한 조직신
학을 집필해 오신 이정웅 선생이
이 달부터는 인물로 보는 한국교
회 순교사를 쓰시게 됐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독자
와 충현지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
꺼이 맡아 주셨다. 큰 기대와 성
원으로 격려하자.

(형수)

<표지 설명>

수확을 보는 마음도 맘껏 풍요롭
다. 한해의 고생을 결실하는 기쁨
을 안고 감사찬송을 안 드릴 수 없
다. 알알이 영글은 열매같이 우리
의 마음도 알알이 맺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
냐, 하물며 저 풍성한 수확을 더하
여 주시니 입벌려 감사할 뿐이다.

월간「충현」 11월호 통권 제35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11월 14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금년도 추기 성례식이 10월 14~17일 사이에 배풀어졌다.
15일에 있던 세례식에서 유아세례를 받는 모습!



◇ 지난 15일 저녁 성례식에서 세례 직전 400여수세례자들이 문답하고 있다.



◇ 10월 10일 저녁 예배시에는 교회살림 23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지난 17일 주일 1·2·3부 예배시에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성전예식이 있었는데 수천한 교인이 2,759명에 이르렀다.



◇ 금번 성례식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의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가 있었다. 고등부 학생들이 세례문답을 하는 광경이다.



* 개혁자의 기도 *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날마다 많은 축복
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여,

우리가 우리의 임종시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향
하여 매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주
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매는 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
며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주님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배
우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람됨과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
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